

성도의 빛



19 石金·仙巖

新年特輯號

목차

권두언(선교부장)	4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8
나는 이렇게 새해를 맞습니다.(금바울)	14
지부장으로서는 외 나외 신념(도길회)	19
내가 받은 축복(와다배 마사오)	24
말해 에 생각나는 이야기(한인삼)	29
지혜의 말씀(주덕영)	33
한국 선교부 10대 뉴스	39
트리스마스 칸타타 중계	40
텔레비죤 방송 중계	44
멀리 왔는 성도들	46
보고 싶은 성도들(김양자)	49
각 지부 소식	52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	53
대구는 건재 합니다.(박석도)	54
나예겨 마이르를	58

* * * *

표자 설명

새해아침 자신을 갖고

모든일에 도전하자

謹賀新年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宣教部長團

韓國地方部

地方部長團



卷 頭 言

Editor's Page

말 해 에

宣教部長 裴 一 文

아직도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중국식 육갑, 달력에 의하면 1966년은 병오년, 곧 말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말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커다란 의욕으로 새해를 넘겨다 보는 자리에서 나는 말일성도로서 한 때 관리 감독단의 관리자였던 말빈 오. 에쉬튼 형제께서 늘 즐겨 전하시던 이야기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통말과 아라비아 준마와의 차이점을 예로 열거한 것입니다.

준마의 훈련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말이 갓 낳았을 때 부터 주인의 명령이 여하한 것일지라도 이에 복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말이 아주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며 또한 무서운 속도로 뿔박질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특히 난경에 처하여 그 주인의 음성에 복종치 않는다면 이는 짐을 끄는 나귀만 못한것입니다.

젊고 패기에 찬 준마와 보통 말과의 최종적 분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관별될 말들은 우리에게 감혀 수입 동안이나 먹이와 물을 얻어 먹지 못합니다. 어린 짐승들은 무엇보다도 이 본능적 욕망으로 먹이를 찾습니다. 헛바닥은 가죽처럼 굳어지며 말들은 땅을 구르고 무서운 기세로 울타리친 담을 들이 받으며 온갖 방법으로 갈증과 허기증을 메꿀 수 있는 자유의 길을 강구합니다.

마침내 주인은 감아 두었던 울타리의 빗장을 벗깁니다. 말들은 뿔박질하여 곧장 앞으로 내달립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원하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은 강을 향하여 다투어 달립니다. 달리면서 갈증의 대상이 되는 그 본질을 냄새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실한 목전의 만족을 미처 누리기 전에 주인은 말들을 정지 시킵니다. 어린 짐승들에게 쓰디쓴 삶의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들은 준마가 되어 위대한 사람들, 곧 표지 워싱턴이라던지 에리자베스 여왕이라던지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누추한 마구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잡초를 먹어야 하느냐를 판가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부에 있어 1966년은 진실로 말의 해입니다. 또한 한해가 통채로 우리앞에 있어 모든 성도와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던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있어 준마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란의 물결에 처하던지 사사로

운 즐거움에 사토잡힐 지라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란한 세상의 소음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가느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하며 지체하지 않고 곧 그 음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모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짐을 끄는 나귀가 되기보다는 준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다는 사실을 주께 보여드려야 하겠으며 또한 우리는 끈덕진 결심과 분명한 마음으로 일찌기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겠노라는 자세를 바로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침과 칩례를 통하여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보다 많은 헌신적인 마음을 갖춘 새로운 개종자들이 이 준마의 해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교회에 나아올 것입니다. 의의 헌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될진데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진리가 말하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 앞에 가까이 이르도록 노력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계보 사업을 통하여 죽은자들이 구원될 방법을 구하며 교회의 모든 집회에 온전히 참석하는 것을 무상의 만족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경건성을 마음속에 키우며, 교회 일을 행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권을 존중하고 지지하여야 하

며,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부 산하 모든 교회 회원앞에 감히 위의 말씀을 전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나 선교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나 혼란한 중에서 이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킴에 있어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위해 1966년이 우리의 생애통에 가장 기억할만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권고의 말씀을 받아드려 지은 죄를 누우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히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준마의 해, 이 1966년이 주어진것을 감사하며 이 해에 나아가 모든것이 도전하며, 증거하며, 성취하며, 이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 * *

(28페이지에서 계속)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의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온 가족은 저를 가장으로 깊이 존경하며 저의 신권을 존중하며 저의지도에 순종합니다. 저희는 전형적인 물몬가정으로 크게 축복을 받으면서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저희의 기쁨과 행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 預言者의 말씀 —

世俗에 물들지 말라

大管長 데이비드 오·멕케이

워즈워드 가 밀튼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그대 영혼은 한 별과 같아서 떨어져 살았었다."고 하였다. 복음의 원칙을 생각하며 말일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생활 표준을 미루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떨어져 살고 있고" 참으로 "특이한 사람"인 것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다거나 배타적이 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만"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야고보가 말씀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점에서 교회는 독특해야 하며 이러한 뜻에서 볼 때 교회의 회원은 순수한 별이어야만 한다.

구세주께서 하신 가장 인상적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 사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세상에 있어오며" (요한 17장 11절)라고 하셨으며 곧이어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 17장 15절)라고 의미 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알마서 42장에 기록된 물몬경의 교훈과 일치한다. 즉 인간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져갈 것을 경험하여 획득하기 위해 사나 세상의 죄는 짓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시던 그 밤에 자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6장 33절) 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나가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악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서 사도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이다. 나는 때때로 교회의 일에는 분명히 아무런 관

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심한 도전에 대항해서 견디어내는 것을 본일이 가끔 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침략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교회를 옹호하고 이를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골몰할 때가 가끔 있다. 이 감채, 이 방어 정신은 언제나 특별한 반대 세력의 출현과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것을 항상 갈구하게 된다. 바로 오늘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곧 교회를 방어하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들 옹호하는 힘이 약화된 우리 영혼에 침략이 자행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태풍을 만나도 견디어 내 나무가 험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파멸력을 가진 해충으로 말미암아 쓸어질 때가 있으며 또한 오늘날의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험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육체를 파헤치고 들어오는 세균인 것이다.

오늘날의 남자와 여자를 모트는 사이에 해치는 것은 사회속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다. 우리가 이들 악한 영향력의 침식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어하는 가능성도 약화된다. 이것은 개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다. 개인의 질여하가 단체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다.

한번은 솔트레이크시에서 과히 멀지 않은 아름다운 계곡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드라이브 간적이 있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밀밭을 지나갔었는데 마른 밭의 밀을 바라보았을 때 절말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무리중의 한 사람이 풍성히 자라난 것을 보

고 감탄을 발하자 모두들 바라보게 되었다. 밀밭 주위는 산썩이 군데 군데 있는 볼모지였다. 우리는 전체토서의 밀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차를 세워 밀이삭 하나 하나를 들여다 보고는 "밀 이삭이 모두 굉장히 큰데"라고 소리 질렀다. 단지 한 밀 이삭이 그로 하여금 그와같은 인상을 받게 하였다. 소리 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꺾질을 붙어버리고 밀알 하나하나를 들여다 보아서 "밀알이 토실 토실하고 단단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 밀밭을 검사했다는 것을 밀알 한개를 검사한 것이었다. 공동사회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은 각 개인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개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각 사람은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 "배가 올바르게 생활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신다. 관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나와 동역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었다는 것과 주 구속주께서 생활하신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세상의 죄에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확정된 정의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가 있다. 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성도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들은 교회와는 소원되어 있는 자들이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소원하려는 정신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였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말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디모데 후서 2장 22절) 우리는 이미 마음의 깨끗함— 시온은 마음이 정결하다는 뜻이며 우리 교회의 힘은 교회 회원의 정결한 사상과 생활에서 솟아난다는 말을 들어왔다. 즉 예수께 대한 간증은 영혼속에 깃드는 것이며 힘은 세상의 악을 견디어 내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악은 교활하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다. 마치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 구세주께 나타난 것처럼 유혹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태 4장 3절)고 사탄이 말하였을 때 사탄은 식욕에 호소하여 마음을 끌어 보려하였다. 사탄은 예수가 굶주렸고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빵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돌맹이를 가리키므로서 예수가 먹고저 하는 욕망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태 4장 4절)는 거룩한 말씀을 대담으로 받은 사탄은 실패한 줄로 알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사탄은 자존심, 허영심에 호소하기 위해 자기의 유혹의 뒷바침으로 성경을 인용하였다. 악마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경전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이에 구세주는 "기록하였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 4장 7절)고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였다. 셋째는 무엇이었던가 세력, 권력, 부에 대한 애착심에 호소한 유혹이었다. 만일 내게 없으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세상만족과 그 권세)을 내게 주리라"(마태 4장 9절)고 유혹하는 자가 말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태 4장 10절)

여러분이나 내게 오는 모든 유혹도 거의 이같은 형태로운 유혹들을 분류해 보면 이 세가지 유혹중 어느 하나가 여러분이나 내게 흠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1)식욕의 유혹 (2)하나님의 것과는 소원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만심 풍조 허영심에 함복하는 것 (3)세상의 부나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권력을 쥐려는 정역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의 셋으로 분류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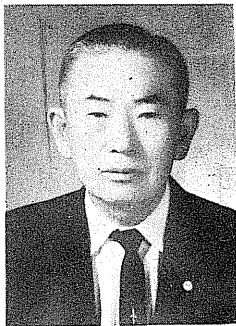
우리들 각자가 세상속에 있으면서 이 유혹들에 초연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 * * *

(23페이지의 계속)

끝으로 나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강한자를 넘어뜨리게 할 주님의 현명한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악은 짓밟혀 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온 천하에 건설될 것을 알고 있다.

하루속히 많은 한국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식에 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새해를 맞습니다

금 바 울

신자가 아닌 어떤 친구가 나를보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돈벌고 술마시고 담배먹고 미녀와 가희와 더불어 함락하는 재미를 모르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그 불쌍하다는 이유마저 설명해 주면서 대관절 고적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위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 도학자이신 나의 선친에게서 "세상 사람이 누가 돈을 싫어합가마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서는 못쓴다. 자연히 순리로 벌리는 돈은 구태여 거절할 필요가 없지마는 억지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쓸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 생각하고 한평생동안 의롭지 못한 돈은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또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한 주일동안에 주일날 하루만은 주님께 봉사하고 나머지 엿새동안은 내 업무에 충실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서 "오늘 하루동안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일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근무시간 중 남을 위하는 마음, 사랑, 정의, 친절, 자비 등 공명정대한 심정으로 나의 가진바 모든 지혜와 능력은 다하여 일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물론 그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일용할 양식 즉, 약간의 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나의 본분인 일을 마치고서는 안식처인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온 가족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리에 누으면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과 고등학교 졸업반인 막내아들이 나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허리를 두드려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해주는 것이 거의 지난 1년동안 반복되는 나의 일과입니다.

누구나가 거의다 평생동안 계명을 잘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동안 계명을 어기지 않기에는 쉬운 일입니다. 영원이란 순간과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 처하여서라도 그때 그때 그 순간 그 순간을 최대의 힘을 기우려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그것이 계명을 영원히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계명을 잘 지키려는 것보다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1964년 1년동안 나에게 2,055 건이나 되는 일을 처리하는데 한 건도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1965년 이해가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2,162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한 축복을 주시었습니다. 솔로몬은 "은을 탐하는 자는 은으로서 배

부르지 못할 것이요, 풍성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익으로서 배부르지 못하나니 이도 또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귀를 좋아하고 빈천을 싫어하기는 매일반 일 것입니다. 물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의 제자중의 한사람인 자사는 부와 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하고 남에게 구하지 않는것을 부라라고 남에게 굴하지 않는것을 귀라한다고 부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난 1년동안 나는 2,162건이상이나 되는 일을 처리하는데 한건의 실수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고 또 최저의 법정요금으로 봉사하여 생긴 보수가 별로 남는 것이 없어 저축한것도 없거니와 그래도 하나님께 십일조 헌금을 하고 나라에 세금도 바치고 성결한 생활을 하기에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누구에게도 돈을 구려가지도 않았고 또 남에게 별로 잘못해서 머리를 숙인 일이 없으니 가이 부귀한 팔자라 할 것이요, 그위에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몸과 마음 평안케 보호해 주실뿐 아니라 금년 7월에는 현숙한 나의 노처가 신병으로 중태에 빠졌을 때 백약이 무효이었으나 성도들의 정성어린 금식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였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전도서 3장 22절에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나는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슨일거리틀 주시던지 그 주시는 내일을 심혈을 경주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19절

내가 보건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에 먹고 마시며 날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복을누리는 것이 좋고 아름다우니 대개 이것이 그의 일을 본분이니라

또한 무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산업을 주사 능히 누리게하시고 본분을 지켜 그 수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심이 곧 하나님의 주신바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이 그릇되지 않을진대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모를 당하여 지난 1년을 회고하니 미국본부에 계시는 데비드 오. 메케이 대관장님, 힘클리사도님, 한국 선교부장 팔머 박사님, 이호남 지방부장님, 한인상 장로님, 박재암, 송태섭, 그밖에 국내의에 계시는 친애하신 여러 형제자매님께서 심히 부족한 나를 위하여 최고의 덕성있는 생활을 하여 대신 권소유자로서 이 나라에 천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나로 하여금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위하여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간접으로 보살펴주시는 조진만 대법원장님, 전우영 법원행정처장님, 김세영 부산지방법원장님, 김동선 사무국장님, 이인기 총무과장님, 김명천 등기과장님, 백노학 부산 사법서사회장님, 허만복, 강명완, 전계원, 김태현, 그의 동업자 여러 친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사도는 육신은 윤택하나 정신은 날토 새롭다 하였거니

나역시 해를 거듭할 수록 육신은 휴폐할지언정 새해에 우리 주
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신을 배나 더 주시사 나의 정신이
더욱 새롭게되고 "볼지어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
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1-13절) 솔로몬이 지은
노래를 생각하고 내 이제 69세의 신년을 맞건만 인생의 봄마지
하는 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부푸른 심정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친애하는 "성도의 벗" 애독자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과 여
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支部長으로서의 나의 信條

大邱中央支部長 都 吉 會

우리는 말입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간증 시감에, 자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계시로써 역사하시며, 이 교회는 말입에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듣게 된다.

이 놀라운 말은 성령의 입도로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바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께 간증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였고, 주께선 대답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함 이는 철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셨다.(마태 16장 17절) 일반적인 학식이나 견문으로서의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진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따라 전세에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을 따라 각 개인에게 주어진 현명한 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학문이나 학식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동안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에 따라 그 자신의 능력과 정도만큼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 지혜로운 이었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깊이 지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열쇠를 주었으며 이후 많은 일을 주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그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잠토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서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토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호된 책망을 받았었다. 또한 그후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과 질문을 받을 때와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낙담하여 많은 잘못을 범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으로써 능력자와 현명한 선생님이요 구세주이시니 절대 의지하고 신봉하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다니 그의 마음은 약하여지고 절망하게 되어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촌부에 불과하였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의 눈에 기이하게도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교훈을 주시고 또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토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안을 치라 하시고"(요한 21장 16-17절) 이제부터 그 자신이 뎀소 인도자로

서. 일해야 할 사명을 주셨건만 그는 용감하지 못했고 마음속에 공포와 주저 갈등으로 인하여 문을닫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사도행전 2장 1-4절) 담대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사도행전 2장 23절) 하면서 큰 소리로 책망과 회개를 의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강한 사람으로 변확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굳건히 하고 많은 계시와 지식에 따라 신앙과 믿음의 본을 설파하였다. 그러면 그를 일깨우고 강하게 변확시킨 놀라운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살아 계실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기약이 차가매 그 마음이 민망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셨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며 다소나마 그 자신의 발전 가능성인 예지와 능력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분발하였으며 양심을

받아 영향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과 악을 판단할 지식과 경험과 빛과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더 나은 예지 즉, 그리스도의 영향 하에서 살도록 신앙의 길이 주어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하여 각자가 소유한 빛과 진리 지식이라는 위대한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서 모든것을 생각나게 하며 구하게 하며 행동하게 하며 가까이 하신다. 이와같이 말일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자들이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므로써 계시를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명철을 찾을 수 있으며 구하면 열고 두드리면 열리며 완전한 지식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지 못하고 그릇된 믿음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른다.

믿음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누구든지 이 지혜를 깨닫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간증할 수 없으며 신앙할 수 없으며 맹목적인 믿음으로 끝날뿐이다.

많은 기독교의 이 지식의 결여로 인한 혼란은 논할 가치도 없거니와 오늘날 한국 말일성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족을 느끼게 되고 통감 될때가 부지기수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살아있다고 간증하며 교회에 속하고 있지만 신앙이 부족하여

맹목적인 때가 많으며 입술뿐이며 기회주의적이며 단순한 믿음으로만 이해하고자 할뿐 정육의 인도대로 이기와 시기와 악의 유혹대로 혹은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성령에 귀를 기울여 구하거나 듣거나 말하며 기도와 선한 행위와 사랑과 관용으로서 행하며 부름에 기꺼이 봉사 하려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장 15절)는 오늘날 말일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다.

굳이 대구지부장으로써의 나의 신조를 묻는다면 나는 담대히 나 자신은 회개의 합당한 칙례를 통한 성령의 은사토써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구세주임을 확신 하였으며 생활을 신앙으로서 일관한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삼 주심을 승영의 표대를 향하여 매진한다고 크게 간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자이며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돌몬 교회의 진리를 얻은 후 내 자신의 생활 지식과 위치가 크게 향상 진보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 가족과 국가 지상생활의 모든 생활에 감사와 기쁨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말일성도와 또한 앞으로 진리의 빛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미래의 모든 말일성도에게 또한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한 기쁨과 신앙과 지식을 얻기를 원하며 마지 않는다.

사람이 선한 마음과 진리토써 순결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죠셉 스미스와 같이 위대한 지식에 속하는 현명한자가 되어서 높은 영광과 축복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13페이지에 계속)

내가 받은 祝福

渡部 正雄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이래 저는 이루 측량할 수조차 없는 축복을 받았으며 받은 모든 축복을 낱알이 헤아릴길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는 두분 모두 일본인이시고 저는 1914년 6월 6일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로 전쟁이 끝난후 남만주 철토 시설권을 일본이 얻게됨과 동시에 저의 부친은 이 철토 시설작업에 종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노서아, 몽고 등의 여러나라 사람들 틈에서 자라나게 된 저는 차차 성장하면서 세계 평화와 세계 여러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에 헌신하여 일하는 것을 평생 목표내지 이상으로 간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유교사상과 기사도 정신의 교육을 통하여 자제력을 쌓는 훈련을 뒤앓고 신도를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사도 정신 내지 신도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통합을 가능하게 할 길을 모색해 봤으며, 제가 생각했던 생의 목표는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신도사상은 전세계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다는 높은 이상을 지닌 주의임에도 어찌하여 이를 확대시키자는 자의 노고가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알길이 없으며 그 높은 이상을 견지하려던 정부의 정책 방안은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 2차대전을 초래케 했고 종내는 함복해야 했으며 완전한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게 하고야 말았읍니다.



일본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스스로를 재검토했고 지난 과오와 이기적인 생각과 우월감까지를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상한 심령은 기꺼이 복음의 빛을 받아드렸고 주의 음성에 귀기우리려 했읍니다.

처음으로 알게된 것이 천주교였고 그곳신부는 저에게 영세를 권했으나 저는 영세에 앞서 무엇인가를 좀더 배우고 싶었읍니다. 그 신부가 독일인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뒤 저는 감리교 선교사로 일하는 부부와 친교를 갖게 되었는데 몇해 후에 역시 이들 부부도 저에게 감리교토의 개종을 권유했으되 그때까지도 저에게는 그들이 분명하게 답해주지 못한 수 많은 복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읍니다. 드디어 저의 제자들이 소개해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 젊은 선교사에게서 저는 제가 가졌던 복음의 의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었으며 죠셉 스미스 자신의 기록을 읽고는 감동된바가 컸읍니다. 또

물론경을 읽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씀을 발견해 냈습니다.

"내가 열방의 나라를 샅켜 이 땅을 강하게 하리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멸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니라 나를 거역하여 왕을 세우는 자는 멸망당할지라 나 주가 하늘의 왕임에 저들의 왕이 되며 나의 말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라" (니파이 2서 10장 12-14절)

이 성구가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저의 높은 이상의 전도에 대한 의문을 답해 주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안에서 생활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도를 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이 교회로 개종케 된 두개의 큰 이유의 하나입니다.

죽은자를 위한 칩레를 배우게 되었을 때 2차대전에서 죽음을 당한 저의 친척과 벗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바로 이 성스러운 의식을 통하여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개종의 두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운뒤 저는 1949년 11월 6일 이 참된 교회의 칩레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반 쯤뒤, 그러니까 그 해 크리스마스에 저는 제사에 성임되었고, 다음해 여름 저의 처와 큰 아들이 칩레를 받게 되었으며 제가 칩레를 받던 당시 저의 아들셋의 연령이 각각 아홉살, 다섯살, 두살이었던 관계로 남겨지는 각기 여덟살이 되면서 칩레를 받았습니다. 그후

딸들과 아들 하나가 교회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며 저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자라 교회를 끄찍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4월 20일 장로에 성입된 저는 1953년 초 센다이 지부 지부장에 임명되었으며 1957년 9월 선교부 번역사로 부름을 받아 동경으로 집을 옮긴 후 선교부에서 일했습니다.

선교부 족보 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받기도 했고 1959년에서부터 1964년에 이르는 동안 두번이나 지방부 평의원의 부름을 받아 일했으며, 한번은 지방부 제일보좌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선교부 번역사로 일하고 있고 족보위원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교회 건축사무실에서 일했으며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북동경 지부, 서동경지부, 동동경지부의 삼개지부가 건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하와 군마에 교회 건물이 둘이 들어섰고 우리 선교부 산하에 아베노, 요코하마, 남동경, 사뵤토 등지에 네개의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맏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타 주립대학에 진학했고 일년후에는 유타 주립대학에서 부리감 영 대학으로 전학했으며 부리감 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애는 곧 그러니까 1963년 6월 일본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1965년 선교사를 끝내고 그애는 식사과정을 끝마치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때 우리 온 가족이 하와이 신전으로가 신전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는 함께 인봉받게 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하와이 신전 방문 계획이 발표된 이래 우리는 여행기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는 계획에 참여했음

니다. 어린아이들 수틀 여섯을 포함한 백 예순 일곱 가족이 1965년 6월 22일 비행기 편으로 하와이에 갔으며 우리는 신전 의식, 영원한 결혼의 의식을 행하였고 큰 아이만 우리와 함께 인봉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아직 인봉받지 못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회를 얻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로 인봉받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은 1962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브리검 영 대학에 진학했고 1964년 6월 2학년 을 마치고는 그 애도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지금은 고후지부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이들도 모두 합당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일하겠다는 지대한 열의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 열심이며 셋째 아들은 요코하마지부 유년주일학교 회장을 맡고 있고 큰 딸아이는 주일학교 의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를 낳아놓고 저는 잠차 이 딸아이가 교회의 품금 반주자가 되어 주었으면하고 마음으로 간구했고 이런 저의 꿈은 실현되어 지금 이 딸아이는 정식 품금반주자로 성찬식에서 반주하며 다른 집회에서도 반주를 맡 습니다.

저의 처도 교회에 대단히 열심이며 상호부조회의 회장, 보좌, 서기, 사회과학 교사등의 직책을 오래 동안 맡아보았습니다. 지금 저의 처는 건축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의 온가족이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는 모두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월요일 밤 가족의 밤을 가지며 함께 찬송하고
(7페이지에 계속)

말해에

生覺나는 이야기

한 인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우리에게서 박탈해 갈 사람은 없
고 한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찬양할 자유도 있고 그것이 설
혹 소중한 것일지라도 냉혹하게 배격할 자유마저 있다고 하면,
말해의 이글거리는 태양이 지듯 고 있는 이 아침에 인류와 겨레
의 역사의 책장에 새겨진 말해의 전설이 향 때물은 이야기물을
아람곳까지 않고 다만 말해가 내게 전할 수 있는 근래서 나를
살찌게 할 수 있는 여기를 찾아볼 자유가 내게 있다곤 한대서
이를 탓할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말이 제법 사람을 받았지만 아라비아
의 준마는 세계를 부대로 해오면서 끔찍한 사람을 받아왔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록과 용례가 전할 수 있는 더밀한 보고를
이곳에 소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말의
특질은 첫째 체질이 우수하고 동작이 민첩하며 무섭게 험리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말이 갖지 못한 특질
로 아라비아의 준마는 자기 주인에 대한 거의 절대의 충성심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아라비아의 준마는 어떻게 혼
련되는 것일까? 아니 그냥 아라비아 말은 모두 준마로의 모퉁이를
갈추고 태어나는 것일까? 여기 그 혼련의 이야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제법 쓸만한 말이 새끼

를 날으면 말주인은 우선 살찌게 먹여 준마토의 체질을 갖추게 하면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한다. 달리기 겁기 앞발들고 입어서기, 급히 달리다가 멈추기, 왼쪽 바른쪽으로 급히 꺾어 달리기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훈련을 치르고 나서 거의 말의 구실을 할 때가 되면 주인은 훈련된 말들을 넷가에 지어둔 우리속에 가두고 며칠씩 굶긴다고 한다. 뜨거운 폭염이 내려찍는 벌판, 줄줄 거리는 냇물소리가 들리는 우리에 갇힌 굶은 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 간혹 넷가 쪽으로 부터 미풍이 불어오는 때면 날카로워진 말의 본능은 물 냄새를 맡고 난폭해 지는 것이다. 목이 타서 찢어질 만큼, 그리고 풍겨오는 물냄새, 물 소리, 이토록 허기와 갈증이 극에 이르렀을 때, 말주인은 천천히 우리의 빛장을 벗겨 준다 는 것이다. 갇혔던 말들은 일직선으로 물을 향해서 뚝박질을 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기 이 숨막히는 순간에 주인은 느닷없이 되돌아 오라는 호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아라비아 준마 훈련의 최후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격된 말은 비로서 준마의 명예를 얻고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때로는 들판으로 때로는 어느 왕의 궁전으로 또 때로는 싸움터로 나아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혈통을 빛내는 것이다.

숨막히는 순간에 정지하여 되돌아 올 수 없었던 말들은 발을 가는 말이 되거나 짐차를 끄는 말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말의 비극은 카나리아 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데에 있는 것이거나, 사자같은 날카로운 발톱을 갖지 못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이 시험의 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로 바라보기 전에 기쁨이거나 보람이거나 열광을 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밤에서 낮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피로와 낙담을 가져다 주고 말 것이다. 해는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는 것이고 그것이 꺼꾸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것이 아닐가? 우리의 지상 목표가 완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아픔과 목마름은 결코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니요, 멈추어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비약할 수 있는 그 귀한 순간을 위한 것일 것임에 틀림없다.

말해가 밝아오고 있다.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쩔 줄해가 다 지나기 전에 아라비아 준마의 시중을 드는 하등 동물이 되어 버리고 말건지도 모른다.

문제 풀이

다음 문제에 있어서 괄호 거짓에 알맞게 넣으시오.

1.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십일조를 바쳤다. (참 거짓)
2.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곧 미대륙을 방문하셨다.
(참 거짓)
3. 브리감 영은 물론경 법역에 있어 조셉 스미스를 도왔다.
(참 거짓)
4. 노아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
(참 거짓)
5.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참 거짓)
6. 물론경에 나오는 제이배트 형제들은 바벨람에서부터 미 대
륙에 온 사람들이다. (참 거짓)
7. 침례가 가치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합당한 권능
을 가진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아야한다. (참 거짓)
8. 모든 교회는 참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에 나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거짓)
9. 침례요한은 예수의 사도였다. (참 거짓)
10. 바울은 최초 열두사도중의 하나였다. (참 거짓)
11. 성찬식은 최초 야담시대에 의식화되었다. (참 거짓)
12. 예수께서 니파이 민족에게 나타나셨을 때까지 못자국이 남
아 있었다. (참 거짓)

智慧의 말씀

朱 德 榮

종교가 바로 생활의 방법이며 씬 솟는 이상과 기쁨 속에서 생활하는 몸뚱이라 불리는 순결한 백성들은 1833년 2월 27일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이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진실로 지혜로워 졌으며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로 이끌리어 갔다.

성도들은 수 세기 전 사도 바울께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씬스럽게 살도록 권고하신 다음의 말씀을 잘 기억해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 3장 15-16절)

우리는 지혜로운 말씀을 교리와 성약 89장에서 볼 수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다.

"췌트랜드에 모인 대제사회와 교회와 시온의 성도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라", "인사의 말로서 보내며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계시와 지혜의 말씀이라. 이는 마지막날에 모든 성도의 육체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교리와 성약 89장 1-2절)

교리와 성약에 실린 지혜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술과 강한 음료를 마시지 말라
2. 삼처나 병든 가족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사용하지 말라.
3. 뜨거운 음료 곧, 차와 커피를 마시지 말라.
4. 채소를 먹으라.
5. 과일을 먹으라.
6. 육류는 적당히 먹고 특히 겨울에 먹는 것이 좋다.
7. 곡식을 먹으라.

이어서 주께서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배꼽과 뱃속에 건강을 얻으리라."

"그리고 지혜와 커다란 지식의 보물을 얻으리니 숨겨진 보물까지 얻으리라."

"또 뛰어도 기력이 없어지지 않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나, 주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 곁을 지날찌라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9장 18-21절)

지혜의 말씀을 훌륭히 지켰던 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진실로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 까닭에 거친 황무지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자녀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 지혜의 말씀속에서 깨끗

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온 정신과 정력을 전 생애를 걸쳐
과고 투명한 하나님의 영감속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건
강과 더불어 오래 사는 축복을 누렸으며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다. 역대의 대관장들, 말일의 예언자들의 오래
산 기록을 보며 다음과 같다.

제 2대	브리감 영 대관장	76세
제 3대	존 테일러 대관장	79세
제 4대	윌퀴드 우드럽 대관장	92세
제 5대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87세
제 6대	쇼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80세
제 7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89세
제 8대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	81세
제 9대	데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92세(생존)

오늘날 미국에는 370만 명의 알콜 중독자가 있으며 전 세계
를 통해서 같은 비례로 수천만의 알콜 중독자가 있다. 이들은
이미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음주 습관은 이들의
손과 발을 완전히 알콜로 묶어 버렸다. 이들 중에는 영리했던
두뇌가 알콜 중독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두뇌가 되어 세금을
포탈한 끝에 고소된 젊은 변호사도 있고 가정을 파괴해 버린 후
길가에서 의도치 않게 죽은 사람도 있다. 14살짜리 아들을 자
살케한 남자도 있다. 자살의 이유인 즉 14살짜리 아들이 벌어
모아둔 돈을 아버지가 훔쳐가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술을 사
서 마시려고 아들의 돈을 훔친 것이다. 이들 수천만의 중독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지 가지의 비극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인가? 이들도 역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들인 것이다.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알콜을 자극제 즉, 활기를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알콜은 정신을 침체시키는 것으로 많은 양을 마시면 전혀 무감각이 되며 중추 신경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하며 극적이어서 항상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뇌를 혼수시켜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스톡홀름의 한 연구소는 재미있는 실험을 발표했다. 운전사의 일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알콜을 마시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알콜을 마시지 않게 하고 트럭 운전을 시켰다. 트럭 운전은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두 번째 테스트에서 알콜을 마시지 않은 그룹은 운전 능력을 20%정도 향상시켰다. 그 반면 알콜을 마신 그룹은 25-30%의 능력 저하를 나타내었다. 알콜을 마신다는 것은 조금도 일을 쉽게 하거나 기분을 상쾌하게 하지는 못한다. 어떤 의사가 말했듯이 알콜은 조금도 어떤 일을 좋게 만들지는 못한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그 성분인 니코틴은 입과 목을 포함해서 점액을 분비하는 인체 여러 기관에 급속히 흡수되는 까닭에 연기를 폐에까지 마시던 않던 니코틴은 흡수된다.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독성의 반응을 느껴 속이 메시겹고 토할 것 같으며 때로는 설사 같은 것을 하는 수도 있다. 그래도 담배를 계속하면 점점 반응이 약해지며 중독

성을 띄게 되고 메시꺼운 현상은 없어진다. 그리하여 담배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내코친은 초, 독, 점막을 자극한다. 필타를 사용하더라도 그 영향은 마찬가지이다. 니코친은 또한 말초동맥에 협저한 자극을 초래하여 팔다리 뿐만 아니라 손과 발가락에까지 동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심장에서 세포조직으로 가는 피에 산소가 부족되어 심하면 몸의 한 부분이 썩거나 사망하게 된다. 최근에 미국 의학협회는 담배 연기는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고 암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 연기는 압 특히 위암과 분명한 관련성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사람들보다 위암으로 죽는 사망율이 400%나 높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가정에서는 그들의 소득 중 평균 4.4%를 술값으로 소비하며 2.3%를 담배값으로 소비한다. 그 반면 종교활동이나 적십자회비, 소년단비, 사회사업을 위한 자선비용으로는 0.8%밖에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술과 담배의 판매에 대한 정부의 세금만 해도 45억불이나 된다.

차와 커피 역시 그 주성분인 카페인을 중추신경을 자극하며 심장을 흥분시켜 불면증을 일으키고 혈압과 맥박을 높인다. 1833년 그 당시 차와 커피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주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계명을 주신 것이었다.

여기에 한 간증이 있다.

1919년 펜실바니아 대학의 육상부 주장으로 있던 트리트 헤이먼드는 하바드 대학으로 가서 대학교 육상경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믿는 돌론이었다. 시합 전날

그의 코치는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운을 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는 거절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내일의 경기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헤이덱스는 자기만이 컨디션이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날 자기 팀에서 등수에 든 사람은 자기 뿐이었다. 그는 두번이나 일등을 했고 셋째 번 경기와 마지막 100야드 경기에서는 스타트에서 스타킹 블록이 주러져 넘어 졌으나 일어나서 뛰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일등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최강적 선수를 다섯이나 물리친 일등이었다.

다음의 리레이에서도 마지막에서 두번째 구간이 주자가 되었으나 선수가 없어서 마지막 구간까지 합쳐 220야드를 달리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는 지켰지만 두 구간 220야드를 21초로 뛰어 기록을 세웠던 것이다.

헤이덱스는 진실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뛰어도 기력이 없어지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던 것이다.

1965年度 韓國 宣敎部 10大 뉴스

1. 칼宣敎部長 離任과 팔마宣敎部長 就任
2. 골든 비 힝크리使徒 訪韓 訪韓
3. 70人 長老定員會 會長團 핑크스長老 訪韓
4. 東部支部 禮拜堂 完工과 入住
5. 물몬경 完譯
6. 新村 및 城北地域의 集會始作
7. B.Y.U. 演劇部一行 韓國訪問
8. 韓國宣敎部 系譜委員會 發足
9. 主日學校에서의 성찬 執行
10. 韓國宣敎部 役員세미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中繼

인왕산 기슭의 거룩한 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룩한 밤을 찬양하기 위하여 근 2개월동안 준비하였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왕산 기슭에 자리잡은 선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시간이 가까움에 따라서 각각 맡은 바 위치에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으며 후면 가운데에 위치한 스포트 라이트의 기사가 라이트를 조정하고 있는 품이 마치 텔레비존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개최순서에 이어 한국인 선교사인 한인상장로와 황종섭 장로가 구도자로 분장한 조규영 형제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의의와 생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 줄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예언 탄생이 세상에서의 전도 부활 승천등의 줄거리로 그림과 성문 낭송과 음악으로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완전히 이해시켜주었다. 낭송 사이 사이의 순서로서 지방부 합창단의 합창과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은 모임을 더욱 실감있게 진행시켜 주었다. 이렇게 합창할 수 있도록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와서 수고하신 지방부 합창단 지휘자 정응조 형제, 반주자 성양자 자매,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박주인 형제, 반주자 김혜중 자매님과 합창단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는다. 또한 칸타타를 위해서 합창해주신 모든 선교사들께 감사하며 이 모임을 위해서 오랜동안 수고하셨던 팔머자매님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며 다음해에는 우리 성도들만으로 보다 훌륭한 칸타타를 가질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안으며 과토로 인해 후두 수술까지 받아 성모병원 506호실에 입원중인 지휘자 정형제께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이다. (식)

"거룩한 밤의 찬송" 참관기

함도 부산의 중심지 용두산 허리에 자리 잡은 이 에스 에스 학교 삼층은 7시가 가까워오자 앞을 자리가 없어 서서 보게 된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가득 메워졌다. 팔머 선교부장 카우티 제1보좌등 일행이 7시 정각에 들어서자 곧 "거룩한 밤의 찬송"이 막을 열었다. 인원이 적어 합창단 구성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리라. 짐작케하는 합창대였으나 지휘자 한혜자 자매의 강력한 인도력과 열의는 지부장 벤혼장로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이 난관을 돌파, 음악과 성구낭독과 동참인들의 삼위일체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을 함도 시민에게 잘 표현해 주었다. 귀국 10여일을 남겨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린 벤혼지부장, 신권자도 감당키 어려운 과업을 소행해 낸 지휘자 한혜자 자매, 합창단원과 졸업자들 그리고 남의 눈에는 띄지 않으나 막후에서 남돌래 분장, 확장, 장내 정리에 수고해 주신 몇몇 형제 자매들이 모든 분들의 신앙의 절정체로서의 빛을 발한 부산 지부에 영광이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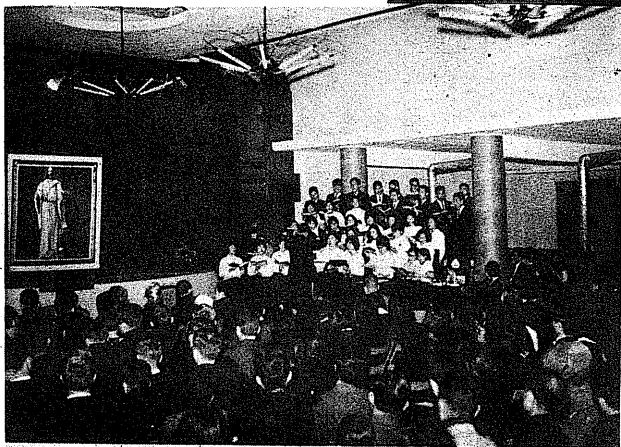
뜻을 합하고 열의를 모으면 안될 것이 없음을 실증하여 준 부산지부께 감사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을 되새기면 이같은 대외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부, 선교부의 사절협의 협조가 있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언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대신동과 수정동 두곳이 힘을 합했다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구세주의 나심은 축하할 수 있고 말의에 세워진 참된 교회를 널리 알릴 기회가 있지않았나 생각되었다. 이제 이것이 시작이었으니 조약대 삼아 비약의 시간이 오기 빌어 마지 않는다. (판)

크리스마스 칸

선교사님들의 합창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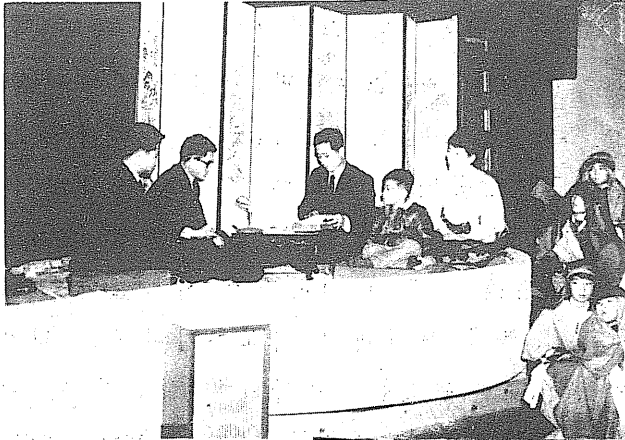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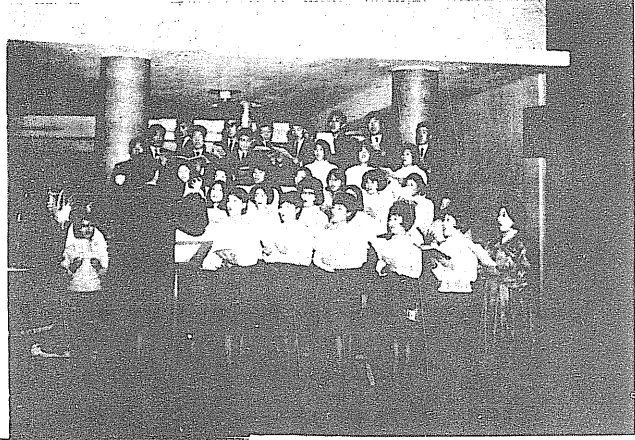
박주인 형제가 지휘하는
어린이 합창단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타타 中繼 畫 報

정응조 형제가 지휘하는
지방부 합창단



가정을 방문하여
선교사님들이

칸타타를 감상하시는 선교부장
님과 치니 형제 내외분



텔레비 放送 出演 中繼

새해 첫주일 저녁 6시 서울 텔레비존 방송국 에이 스튜디오 오옌 고요가 흘렀다. 스튜디오내의 텔레비에 집중된 긴장한 시선들, 조용히 흘러나오는 씨그널 뮤직. "종교시간"이란 타이틀, "오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담담아나의 소개 그동안 두대의 카메라는 팔머 선교부장님과 이호남 지방부장님 그리고 선교부 합창대 앞으로 바짝 다가섰고, 제작기사의 동그라미 싸인이 피아니스 트 성양자 자매에게 주어져 전주가 시작되자, 1번 카메라는 롯데에 빨간 불을 켜고 서서히 합창대를 크로즈업 시켰다. 이어 정대관형제의 지휘로 "타는듯한 하나님의 영"을 드높이 부르는 40명의 "호산나"소리는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분 15초 후 2번 카메라에 불이 켜지면서 선교부장님과 지방부장님의 대담이 시작되었다. 여유있는 부장님의 영감에 찬 말씀은 박력있고 빈틈없었다. 질문 형식으로 전개한 기본 교리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완전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여 총 20분으로 요리된 이번 푸토는 그대로 값진 시간이었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외국어를 옮겨야 하는 불편은 푸토의 비중을 경감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이용하는 충분한 사전 훈련이 무엇보다 아쉬웠다. 이것은 준비한 이야기와 합창을 다하지 못한채 캣트되어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감이 있었다. 특히 많은

시간을 준비한 합창은 그대로 무난했으나 마이크의 배치가 부적합 하였다는 방송국의 기술문제를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소프라노 파트의 일방적인 독주와 전체적으로 공통된 격한 음성은 파트별 구성원의 숫자적인 조정이라는 근본문제로부터 합창하는 각인의 정확한 발성과 보이스의 조절문제가 간과된 감이 있었다. 그리고 종교음악의 무드 조성 과 앙상블을 이룰 균형잡힌 화음이 귀에 거슬리지 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듯 싶었다. 특히 교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경솔이나 실수로 교회의 권위와 신성을 격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출연한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느끼게 하는 영적인 준비와 무장이 필요했던것 같다. 물론 스튜디오 안에서 선교부장님의 제의로 잠간 기도하므로서 얼마쯤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지만 평소의 수련이 아쉽게 생각되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신앙을 구실삼아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한계까지 어느정도 제정적인 뒷받침, 예를들면 단체행동의 통일 을 위한 교통문제등,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되지만, 모처럼 매당받은 시간이라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던데서 얻유된 작은 실망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텔레비 출연이 이번에 처음이었다는 점으로 한국 성도들의 발전을 자축하는 바이다.

다시 주어지는 다음 기획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내일의 비약을 위한 박차로, 지나는 걸에 느낀 소감을 여기에 한마디 해두며, 음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달)

멀리있는 성도들

성도의 빛 편집과에게



성도의 빛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의 성도들은 다같이 찾아오는 성도의 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특히 한인상 형제나 구종사 형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키오며 다시 오는 초초년도에도 더욱 계속 발전하기를 빌어 이곳 라성의 한인 성도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성지역
한인 ~~대표~~ 代表 李英範
代表

十二月三十一日

995 W 32nd ST.
Ros Angeles, CALIF.

멀리있는 성도들

— 고국에서 멀리있는 성도들에게 —

어둡던 새벽 너머로 동이 터온다. 환히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으로 몰려와 부딪치는 그리운 얼굴들이 있다. 멀리있는 성도들이여 형제여 또 자매여 이 아침을 함께하고 싶은 고국의 벗들은 이 작은 성도의 벗에 사랑과 기도와 정성과 체온을 담아 보내요. 갇혀진 아픔을 참아 이겨낸 한해를 조용히 묻어 두고 햇빛이 찬란한 새해의 광장으로 달려나아가 나와 너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쌓아야 할 이 한해의 아침을 가슴에 깊이 새겨 두오.

기름타는 냄새가 고까웁으로 단장한 아기들의 종알거림 사이로 흩어져 새로운 건설이 역사위에 새겨지고 형을, 누이를,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그리워하는 퍽직한 검은 눈에는 다시 만났날의 설계가 벅차게 펼쳐지오. 건강해야 하오. 육신과 정신이 아울러 건강해야 하오. 보람과 영광을 추수하게 될날까지 참을성 있게 일합시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오

다음달 까지 안녕 (인)

멀리있는 성도들

- 월남으로 간 유춘재 형제 -

이스라엘 장토이며 삼청지부 지부장단에서 열심으로 일하셨던 유춘재 형제는 험제 월남으로 파견되어 군에복무하고 있으며 여러 형제 자매들의 건투와 신앙을 빈다고,

유춘재 형제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서신 연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우 151-501 주월 한국군 사령부 J-6

일병 유 춘재

- 귀환 선교사 러셀장토와 웨스턴스코우 장토 스테이크 선교사로 활동하다 -

지난 5월 본국인 케너더로 돌아간 러셀 장토는 그의 부모들과 기쁨의 재회를 한 후 유타로 가서 지금은 브리감 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같은 귀환 선교사인 웨스턴스코우 장토와 함께 스테이크 선교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험제 브리감 영 대학에는 15명의 한국을 다녀간 선교사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오계희, 배응현, 김응묵, 이태범의 네 한국 형제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 다시 한국에 돌아온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전하고 있다. 러셀 장토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Keith Russell
665 N. 500 E #5, Provo, Utah

보고싶은 성도들에게

김 양 자

멀리 계신 성도의 그리운 얼굴들을 하나 하나 기억하며 교회와 함께 성장하여 오는 김자매가 예전에 조그마하던 토속으로 여러분을 대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쓸가 말가한 망서림속에서 쓰고싶은 맘이 더욱 강하였기에 복음속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대할 오누이의 심경으로 여러분께 글썽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로 시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하던 흥병식 형제 내외분 조그마한 체구에 할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이 영범 형제님, 엇장수 흉내를 독특하게 잘 내시는 최상훈 형제님, 기다리아저씨 김응목 형제님, 바둑을 즐기시는 배응현 형제님, 말없고 쫄쫄으신 오계희 형제님, 이태범 형제님, 홍우식 형제님, 이인순 형제님, 이충길 형제님, 귀여운 아가의 아버지 흥범식 형제님, 자랑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시던 서정자, 김부자 자매님 또 멀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 오래 전에 같이 지내던 시절이 더욱 그리워지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지면으로 세배드립니다. 새해 첫날 아름다운 동부지구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조용한 가운데 진실된 맘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건강과 어려운 이국생활의 시련을 잘 견디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단순 하고 순결한 자세로써 한저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꼭 응답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 한국의 말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는 많이 발전하였고 또 자꾸 성장하고 있습니다. 팔머 선교부장 내외분께서 밤낮으로 한국의 물몬들을 위하여 기도와 영적인 말씀은 저의 맘을 뜨겁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남 장토님을 위시하여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늘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연약한 자매지만 더욱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강한 의욕을 만들어 줍니다.

멀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조그마한 시절 손발이 조그마하여 추운겨울에는 공공언 입과 손발을 동동거리며 형제님들의 뒤를 졸졸 따라 일정하지도 않은 예배장소를 서글픈 표정으로 찾아가던 그 시절, 잊혀지지 않고 또렷이 생각납니다.

어렵고 고달픈 환경에서 한국의 말일성도들도 자라왔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동부지부의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보다는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예배당을 갖게된 우리는 비례적으로 훌륭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이 물어보고 저대토의 답을 지어 봅니다. 옛날에 정다움게 지내던 식구들은 몇몇 안됩니다. 멀리 있거나 교회밖에서 헤메이거나 하여 저의 맘을 외로웁고 슬프게 하여 주곤 하지요. 보고싶은 형제 자매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날엔 꼭 고국에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돌아오시는 날은 한국의 물몬들이 더욱 잘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또 한국의 물몬이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고국을 떠난 먼곳에서 고

국의 하늘을 그리워하고 눈물 겨우고 쓰라린 생활이 연속일지라도
늘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국의 성도들을 기억하
고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 오손도손 이야기 꽃을 피
우며 더욱 정다웁게 지낼날들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힘
이없고 보잘것 없는 김자매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라면 고국에서 힘닿는 데 까지 일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쁘게 알려드릴 일이 꼭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유년 주일학교도 이제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
해요. 교재도 나오고 교사들도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물론 의 아기들이 성장해 가면 저도 자라고 있다
고 믿어요. 언제나 아기들의 꿈이 깨어지지 않도록 "물론의 아
기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어요. 저의 글이 졸렬하오나 여
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
다.

멀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과
견투를 비는 맘으로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음속에서의 자매

김 양자 올림

1966. 1. 3.

各支部 消息

청운 지부

한국 선교부하에서 가장 나어린 지부라 해선지 이름이 청운이라, 길이 간직할 쥘져. 푸르른 마음속에 깃피어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눈들을 회원수가 적다 할손 이것만은 자랑치 않을 수 없다.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참석인원 순위별 년간 통계를 볼치면 수위를 차지할 것?

인원수에 비해 참석인수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자라는 청운 지부의 발전이 눈앞에 도사린다.

서성그런 묵은 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겐 영원에선 기쁜 한해이어야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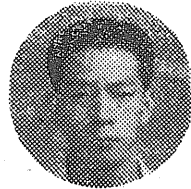
묻지 말라. 영원속에 잠든 날은 영원에의 발돋움이기애 이것이 승영애의 길. 부분의 발전은 전체의 향상을 말함이니, 내 지부자랑이 전 한국 목몬의 긍지를 일세워 주는 기쁨이 거니.

* * * *

지는해 쫓아 자태를 감추려 뱀고리에 아쉬듯 삼백 예순날, 가고말아, 너와 나에게 또다시 찾아온 성탄절, 설달 스프릿새 날 밤. 여든식구 오붓이 모여 건너 주는 웃음속에 한가닥 따듯한 형제, 자매애를 웃입혀 보았다. 그러길래 청운지부 성탄절 파티는 연이면 아깃하고 뒷미쳐 찾아든 아쉬움 더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휘나래. 특히 연세 자긋한 김형제님의 라노비아며, 네 어머님들의 아리랑 울조는 뱀들허리를 슬쩍 미끄러져 해를 물고간 추억에 깃하들리 (건)

말일성도 교회란 ?

박 석 현



는하느
님에게
구하라
. 그리
면주시
리라”
는가르
침을민

오늘날 현대인은 방대한 문명의 조직속에서 자기소외를 당하고 고독한 군중으로 전락하고, 현대문명은 몰락의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

물질 문명에 현대인은 종교에 흥미를 잃고 있다. 이 현대의 위기는 종교의 문명 가치 즉 사회의 보존과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종교의 의미를 재 인식하고 신에 귀의 하므로써만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내가 는 종교를 소개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교 제 교파 중 가장 새로운 교회이며 역사적으로나 또는 현대의 공동단체 신학과 관습상으로 보아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와 구별된다.

19세기 초기 미국에서 각 교파의 종교가들 사이에 논쟁이 격심했을 때 예언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 야고보서의 “나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고 진리를 얻기 위해 어느 교파에 속해야 할지 하느님에게 간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훨씬 멀도라.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전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사자 모르나이로부터 미 대륙의 선주민에 관한 기

“모든 성도는 선교사”이다.

북과 영원한 복음이 기록된 금판(Gold plate)의 계시를 받고 「뉴욕」주 「몬타리오」군 「켄치스터」마을 근처의 구모라 언덕에서 금판을 발견하고 올리버 카우드리의 도움을 받아 모르몬경을 번역하였다,

그후 조셉 스미스는 사람들의 조소와 박해를 받고 수차 체포되까지 하였으나 하느님의 위대한 사업은 계속되어 교회가 조직되고 말일에 이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뜻에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이상으로 간단히 모르몬교의 기원을 소개했으며 그 헌세판과 내세판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의 상태로 하늘에

서 추방된 사람은 육체를 갖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며, 인생의 첫째 목적이 육체를 없이 우리들을 완전한 영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스님은 예언자 조셉 스미스에게 사람은 영이니라. 원초는 영원한 것으로서, 만일 수 없도록 결합된 양과 원소는 충분한 기쁨을 받느니라 이 두가지가 서로 분리될 때 사람은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느니라”라고 계시하였다. 그리고 속명론을 부정하며 자유의지는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고 한다 “만일 그대가 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참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교리와 신약) 이 사상은 켈빈이즘의 예정설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교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은 성스러운 신원을 통해서 천세로부터 영원에 걸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 굳게 맺어지는 것이 생활하기 위해 굳게 맺어지는 것이라 하고 이 와 같이 굳게 맺는 결혼의식 없이 는 누구나 해의 영광의 최고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르몬경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원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대구는 건재합니다.

박 석도

1965년이 저물어 갑니다.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접었던 이 해이기에 미처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마냥 불들어 놓고 싶은 해입니다. 정말 허무 뒤흔람한 생각이죠. 솔토몬도 진시왕도 그밖에 누구냐 어쩔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력인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속에 기독교 국가의 세계적인 명절인 즐거운 성탄절이 돌아올제면 산과들에는 성탄절에 내리는 하이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사람들의 귀에는 징글벨 징글벨의 성가대 노래가 들려오볼 착한 어린이 들에게는 산타크로스 합아퍼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뎬일을 남겨놓고 기다려지고 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엄청난 신앙 생활과 선교부의 보호 "재생의 해"를 무겁게 저울질 하면서 대구지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는 무한한 이상만을 주었고 고개 넘어 언덕으로 미지의 세계를 헤매든 이상속에서 그래도 옹케 오늘의 자신과 대구 지부의 위치를 살펴볼 때 대견스럽기만하다. 스쳐가는 지난날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은 깊은 참회의 눈물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부정을 꺾지않은 긍정이 진실될 수 없듯이 고난을 치르지 않은 행복은 참된 고마움을 모르듯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수록 지극한 슬픔이 그 밑받침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지부의 형제 자매들은 새벽의 별빛을 받고 이슬함복젖은 푸른잔디 위에서 인생을 한없이 노래하렷라는 막연한 염원으로부터 이

젠 꿈의 확실한 규명자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었다. 즉 말하자면 가냘픈 신앙으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가능에서 필연으로 이끌어 올린 것은 슬픔 많던 신앙생활이란 것이 영원한 "모뉴망"으로 남게 될 것이며 공통된 인간의 병질은 내일을 너무 기대하고 오늘의 귀중함을 모르는 듯하다. 이 병질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동경으로 변할 것이며 청년은 소년 시절을 생각하고 노인은 청년 시절을 생각하듯이 나도 이 미련스런 동경의 교훈을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서 신권의 특권을 생각하면 너무나 어슬프게 가버리려는 값진 해이다.

생각컨데 삼덕동의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두개의 방과 싸늘한 마루바닥에서 장난감같은 울젠에 장단을 맞추어 갖 시집은 새악씨처럼 서글픔도 모르고 꿈 많은 장래를 약속하며 정성어린 그 모임에서 형제자매님들의 뿌리 없이 씩이어진 사랑의 댕가토 오늘은 웅장한 피아노를 가졌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집 확실히 주위에는 상호부조회에서 만든 커튼들이 더더욱 형제 자매들의 우정을 두텁게 하는 듯하고 토요일마다 쓸고뒹으며 청소하는 요한반에 의하여 지부는 예뻐만 갑니다.

이런 확평스런 온삼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대구지부는 정말 지명곡 같이 삼덕 즉 하나님의 덕, 예수님의 덕, 성신의 덕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지명이 삼덕동이 아닌지 기쁨의 의문이 나의 무딘 감각을 치는구나 이런 전설같은 생활속에서 내욕망을 억제하며 고난 많던 신앙생활은 정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많은 오늘의 산 교훈을 남겨주고 어디든지 가버렸으나 나에게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스스로진 십자가는 언제나 진리로서 길잡이가 될 것이며 또 속세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리라 지극히 고차의 정신세계를 두루 편투하고 있는 내 존재는 이제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존재임을 알았기에 여기서 나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또한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대화를 교류할 수 있는 멋진 존재의 존재 즉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기에 그러하리라. 그렇게도 어렵고 그렇게도 역설적인 지난날의 일들이 이만하면 나에게도 흡족하며 일상생애 담겨 행하여진 듯 사상들은 벌써 나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며 살아지고 하는 생소한 세계이다. 고락을 초월한 영적인 삶이 성취되는 순간들을 갈구하며 이 때야말로 나의 참 모습은 그 확실한 실상을 과시할 수 있으리라. 이렇듯 이제는 육체적으로 슬픔도 기쁨도 다 가버렸으며 야심 많던 나의 꿈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나를 배신하나 그래도 나는 후회없이 이해를 보내며 계속하여 대구에 묻혀서 지부와 영원히 발전하련다.

1965년 12월 12일

대구지부 제1호작 박 석도 드림



성도의 벚"을 펼쳐든 회원들

우리 極東建築 감독 "치니" 兄弟



나에게 마이크를....

"성도의 벗과 벗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삼가 세배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원단 지 영달 올림.

* * * *

새해를 맞아 "성도의 벗"도 신년 특집호를 내게 되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전도서 1장 9절)고 갈파했다. 정월 초하루도 똑같이 해가동에서 떠서 서쪽인 왕산을 넘어갔고 24시간이었다. 이 과정은 아담때로부터 신천신지의 출현(이사야 5장 17절)이 있기까지 계속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왕력이 신년을 만들고 메스롬이 신년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이끈다. "보좌에 앉으신이가 ...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계시록 21장5절)하실때까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에베소 4장 24절)되어야겠다. 메스롬의 신년특집이 매일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매일을 새롭고 보람찬 것이 되게 하자. 자신을 좀먹는 나태와 사치와 허영을 이겨서 예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아들자.(계시록 2장 17절) (판)

1965년 11월 한국 지방부 침례자 명단

- 대구지부 — 이 인선, 김 수영.
동부지부 — 구 자승, 박 호영, 백 인승, 김 석룡, 장 승욱,
김 희수.
청운지부 — 김 광현, 김 룬선, 원 성일, 노 경섭, 최 봉용.
서부지부 — 임 환규.
부산동구 — 한 석순, 이 균력, 나 광용, 문 선영, 송 복남,
최 리안, 김 창섭.

※ ※ ※ ※

편집 후기

희망의 새해를 마지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성도의 벗도 범오년 말해에 준마가 되어 여러 성도들을 쫓
우고 천리길도 단숨에 달릴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겠습니다.
부디 준마가 되도록 채찍을 가해주시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원달
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멀리 있는 성도들"란에 미국 나섬에 계시는 한
국 성도들로 부터 격려의 글쉴이 보내와 그대로 사진찍어 실었
습니다. 앞으로 나라 안의 성도들과의 연락이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식)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 教 部

(住 所 錄)

- 宣 教 本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番地
淸 雲 支 部 } ⑬ 3995
- 三 淸 支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⑭ 3596
- 東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⑲ 1005
- 西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⑳ 1208
- 大邱中央支部 }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㉑ 6659
- 釜山支部 }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㉒ 1371
- 東區支部 }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성 도 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淸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삼청동 5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길 58의1
 대구광역시 서구 서삼동 2가 24번지
 부산광역시 동대문구 대동동 3가 95번지
 부산광역시 동구 수성동 658의10
 제 2 와 드